

제 7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공공 부채

정부들은 자기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큰 국가 부채가 특별히 해롭다는 고별 경고를 가지고 《국부론》을 끝맺는다.

개인이든 국가든 패턴을 가진다. 그리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비도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패턴이 있는데, 한 번 늘어난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기에 큰 국가의 부채는 특별히 해롭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 부채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자애로운 이전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고, 그러므로 번영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

국가부채는 세금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 따라서 세금 문제가 자유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분리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소유의 박탈은 곧 존재의 박탈이기 때문이다. 우리 소득이 세금에 의해 제한 될수록, 존재도 제한된다.

4 《도덕 감정론》

《도덕 감정론》은 애덤 스미스가 35살이던 1759년에 출판되었고, 글래스고 대학교에서의 그의 윤리학 강좌에서 나왔다. 그것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 스미스는 또한 수사(Rhetoric)와 문체(Literary Style)도 강의했는데, 그 언어는 오늘날의 철학자들의 딱 부러지는 과학적 산문보다 더 화려하다. 참으로, 스미스의 친구 에드먼드 버크는 그것을 '저술이라기보다는 회화'라고 서술했다. 그것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

수사라 하는 레토릭의 방식에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세 가지가 있다.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는 각각 6:3:1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다. 에토스가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 외형 같은 것이라면 파토스는 전달되는 느낌과 톤, 어조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 로고스는 말의 논리를 이야기 한다.

• 책의 주요 주제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관념들과 행동들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바로 그 본성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사회 심리가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이성보다 더 나은 안내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분별(prudence)과 정의(justice)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식별하고, 사회가 번창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자선적인(beneficent) 행동들을 설명한다.

• 자기 이익과 동정

개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려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저 분별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고난 동정(sympathy)도 부여받았다. -중략- 그러나 그들의 감정이 특별히 강렬할 때, 공감을 그들을 부추겨 자기들이 우리의 덜 강렬한 반응과 일치하도록 자기들의 감정을 억제하게 한다. 점차, 우리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각각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게 된다. 도덕은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서 생긴다.

• 정의와 자선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수 최저치다. 만약 사람들이 더 멀리 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자선-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정의를 요구하듯이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요구할 수는 없다. 타지에 자선 활동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첫 째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정의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직접 가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의 생산성보다 가지 않고 기금들을 모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면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의에 관한 논의 :

case 1) 의식이 없는 한 사람과 장기가 하나씩 불편한 다섯 사람이 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장기를 나눠서 다섯 사람에게 이식하면 다섯 사람은 살 수 있다.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 사람을 죽여서 다섯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사람을 숫자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공리주의적인 오류이다. 첫 째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인데, 사실상 당사자의 동의 없음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인류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고도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 사람을 죽여서 다섯 사람을 살리게 된다면, 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던 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의는 쉽게 말해서 효율의 문제이다.

case 2) 앞서 논의한 것과 같지만 다른 내용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는 의식이 없는 멀쩡한 사람과 생식 기능이 없는 남녀 각각,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죽는 당신뿐이다. 멀쩡한 사람의 생식 기능을 남녀 각각에서 주어, 생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보편 상황에선 어렵지 않게 규범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하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예외 규범이 생겨난다.

물론 정의에 관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결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정의를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의 정의 또한 효율이 중요하다.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다. 빌라도는 로마인으로 유대의 상황과 문화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다. 재판장으로써 첫 재판에서 빌라도는 도저히 그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기에 석방 시켰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로 예수를 다시 재판하게 되었고 살인마와 예수, 둘 중 한 명을 석방 시키겠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살인마를 석방하고 예수가 형벌을 받길 원한다고 한다. 고민하던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다.

판사가 AI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판사는 규범적인 상황 외에 항상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은 늘 정치적인 과정이며, 그에 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결정적이게 된다. (일본 드라마 '리갈하이' 참고)